

AEGIS, 함께 해주신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리. 편집실

함께 만든 변화,
함께 이룬 시작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해 준
모든 임직원과
프로젝트에 성심을 다해
함께 해 준 수행사 및
개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재영 IT본부장

먼저 준비 및 실행 기간을 포함하여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해 준 모든 임직원과 프로젝트에 성심을 다해 함께 해 준 수행사 및 개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 시스템을 A~Z까지 한꺼번에 바꾼다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고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많은 분들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참여한 구성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업무를 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고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주도하고 수행사도 적극 참여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었기에 비교적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AEGIS가 이제 시작이지만 앞으로 IPO와 맞물려 회사의 새로운 Quantum Jump를 하는 데 있어 기반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안하고,
고맙고,
든든했습니다



이장용 차세대추진부장

우리 회사는 ISIS 이후 약 17년 만에 대규모 전사 프로젝트인 AEGIS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회사를 둘러싼 주위 환경은 녹록지 않았음에도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 AEGIS 구축 프로젝트가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회사와 세부 실행을 계획하고 준비해주신 여러 선배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AEGIS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여러 난관이 없었다고 말할 순 없겠으나 고비마다 함께 버텨낼 수 있었던 건 곁에 있어 준 선후배 동료들의 진심과 배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함께 고민하고 격려해주신 분들 덕분에 늘 든든했습니다. 그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은 인사를 전합니다.

시작, 진행, 마침을 언제나 함께 해 주었고, AEGIS라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같이 울고 웃었던, 각자 자리에서 맡은 업무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그리고 밀어주고 끌어줬던 차세대추진부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을 전합니다.

산이 끝나는 곳에 네가 있었다. 환한 미소와 너울거리는 손짓으로

미안하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하다.. 미소 뒤에 감춰둔 고단함을미안하다.. 흔들어주는 손옆에 흐르는 땀방울을..

감사했습니다!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프로젝트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며

모두에게 더 좋은 일과 행복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년 6개월의 모든 순간을 담은 AEGIS가.



차세대 추진부 Interview, 차세대추진부 직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1. 사업관리& IT기획
2. 인프라 & 아키텍처 & 디지털코어
3. 영업 & 청약 & 심사 & AICC
4. 신용보험, 보상
5. 고객 & 상품 & 구상
6. 디지털채널 & 경영지원
7. 데이터 & 결산지원



인터뷰이	선정 사유
이영석 팀장	ISIS 차세대 때 담당자 시절을 보내고, AEGIS 차세대를 팀장으로 참여한 직원
김희중 대리	PI추진부 부터 지금까지 함께해온 직원
배유리 선임	신용보험 전담 BIZ
신다해 선임	차세대추진부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와 신입시절을 차세대와 함께한 직원

Q. AEGIS에서 직원들에게 홍보하고 싶은 편리한 기능이나 꿀팁을 알려주세요.

이영석 팀장 이번 차세대 시스템 구축과 함께 새롭게 도입된 데이터 포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데이터 포털은 우리 회사의 데이터 현황, 표준, 품질, 흐름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으로, 보다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활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사용하는 표준 계수, 통계 화면, 통계 보고서 등의 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데이터 포털은 S-Square System Map을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배유리 선임 신용보험의 현업 분들이 체감하시기에 바뀐 부분은 개별심사와 정산 출수납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보험 담당자가 전문을 예외 처리하는 개별심사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심사내용 템플릿화로 자동화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금융영업부 상품의 출수납 작업은 자동화에 대한 니즈가 가장 컸던 영역 중 하나인데 결의서 생성 자동화 및 입출금내역 불일치 검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해당 업무가 가능했던 건 업무 프로세스와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던 금융영업부 김새봄 선임님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디테일한 부분의 테스트도 꼼꼼하게 진행해주셔서 결함을 줄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김희중 대리

'상품운용포탈'을 홍보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상품에 관련된 정보를 검색할 경우 Text 기반으로 검색하다 보니 많은 내용이 검색되거나,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 AEGIS 시스템을 통해 기안문서, 업무기준, 보증내용해설서, HOT-LINE, ITSM 등 전사 상품 관련 지식을 상품코드 기반으로 적재 및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 프로젝트 진행 중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이영석 팀장

제가 담당한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ISIS 데이터를 AEGIS 시스템 구조에 맞게 변환 및 이관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차세대 시스템 오픈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정해진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총 9차례에 걸친 주말 리허설을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거듭한 결과,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오픈 당일에도 계획된 일정 내에 무리 없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배유리 선임

프로젝트를 하는 모든 순간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ISIS 체계 위에 구축되어있는 모형을 AEGIS에 연결하는 작업을 모형을 새로 만드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에 구축 당시 전산요건정의서 분석을 새로 시작했고, 개발자분들과 함께 AS-IS 소스를 한 줄씩 따라가며 고쳐나갔습니다. 모형 자체 테스트와 전문테스트, 병행검증을 수없이 반복한 덕분에 ISIS 청약 때와 동일한 모형 결과값을 산출할 수 있었고, 샘플링했던 전문 내 모형 값들이 다 일치했을 때의 안도감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김희중 대리

시스템 오픈일인 1월 27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결함 발생에 대한 걱정과 새로운 시스템 오픈에 따른 뿌듯함과 직원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잊을 수 없는 하루였습니다.



신다해 선임 센터 이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인 것 같아요. 차세대를 진행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전산 장비를 가산 IDC와 하남 IDC로 이전하는 작업을 했는데,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작업을 마쳐야 해서 팀원들 모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피곤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응원하며 힘든 순간을 함께 이겨낸 덕분에 끝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 그 과정이 정말 소중한 즐거웠습니다. 되돌아보면, 함께해서 더욱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차세대 프로젝트를 함께한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이영석 팀장 개인적으로 PI 단계부터 약 3년 9개월 동안 차세대시스템 구축 업무를 수행하며, 첫 팀장 역할 맡아 많은 도전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팀원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기대와 설렘 속에서 시스템 오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ISIS 시스템이 초기 혼란과 안정화 과정을 거쳐 오랜 기간 활용된 것처럼 AEGIS 시스템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더욱 견고하고 발전된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배유리 선임 2022년 7월 차세대추진부로 처음 발령 났을 때는 그저 오픈이 먼 미래처럼 느껴졌는데, 오픈한지 벌써 2달이 넘었다는 사실이 아직 믿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차세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가장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AEGIS 시스템의 안정적인 오픈이었습니니다. 긴장을 안 하는 성격이지만, 최종점검을 하는 내내 손을 벌벌 떨면서 테스트를 했고, 오픈 이후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대처를 하느라 숨 쉴 틈이 없었지만,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금융영업부, 법인영업부, 매출채권보험부, 상품지원부 포함해 모든 현업부서 분들 덕에 안정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상의 한 팀으로 운영과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며 같이 고생했던 IT 영업지원부와 IT 운영지원부,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확인해 주었던 IT 시스템부 등, 모든 직원분들이 함께 도와주셨기 때문에 차세대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한마음으로 도와주셨던 모든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김희종 대리 상품정보의 기반을 재정비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던 저희 상품팀은 도움 없이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없었기에, 저희를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품 Factory·RBMS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청약·전략영업·보상·구상·DA 팀에서 힘써주셨고, 기안 시스템·KMS 시스템 개선을 위해 AA 팀에서 협조해주셨습니다. 또한 보험료·인수 규칙 심화테스트를 위해 상품개발부·상품지원부 직원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신다해 선임 차세대 프로젝트가 끝나고 보니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기쁘고 뿌듯한 마음이 더 큼니다. 처음에는 많은 것들이 낯설고 제가 맡은 역할에 대해 걱정도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동료들과 협력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 경험은 정말 소중한 것 같고, 그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 순간은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이 앞으로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